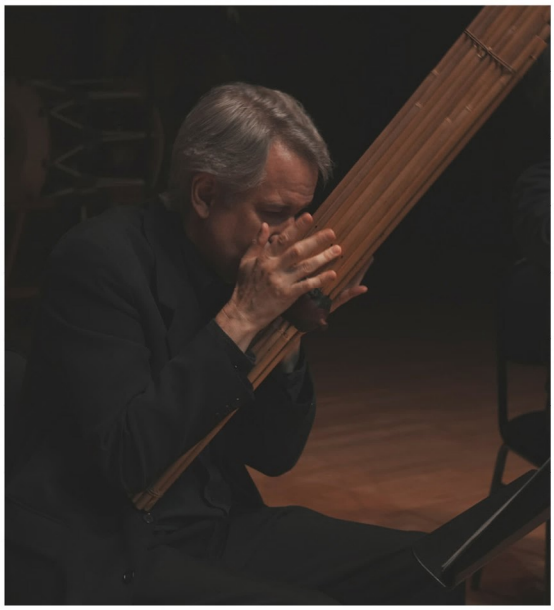
제14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프로젝트 '불멸의 춤을 만나다'

전통춤에서 배태된 인류의 목소리

10월 8일(화) 오후 7:30 국립국악원 우면당



과거 전통과 오늘날의 예술가

까마득한 옛날, 알 수 없는 그 누구로부터 시작한 그 무엇. 그것이 주변의 누구에게로 다음 세대, 이어 다음 세대의 누구에게로 전수되고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을 거쳐 조금씩 수정되며 확장되어 양식화하며 완성도 높은 형태로 빚어진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있다. 과거로부터 온 편지이자 타임캡슐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 전통은 그 본질을 잃은 지 오래다. '완성'되고 '기록'되면서 전통은 이제 '전해지는 큰 줄기'가 아니라 과거의 작품으로서 과거의 어느 순간의 모습으로 박제되었다. 주변의 지인과 다음 세대의 누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더욱 정확해지고 빨라지고 수월해졌지만, 박제된 모습 그대로 보존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예술은 여기에 숨을 불어넣었고 변모와 확장 그리고 극복의 대상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러한 전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전통과 예술이 가야할 또 다른 길들을 열었다. 예술가 각자는 자신의 관심과 신념에 따라 앞에 놓인 길을 가고 혹은 길을 만들어 뒤따르는 후배들이 길을 더 탄탄하게 다지고 폭도 넓혔다. 다행인 것은 그들의 갈래가 서로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교류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직선의 길은 연결된 망이 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시각 또한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돈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상품이 나오는 자동판매기처럼 관객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 그들의 삶이 예술처럼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만무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예술을 오해한 것이다. (어쩌면 그가 한 행위는 예술을 가장한 사회사업일 수도 있다.)

예술은 공기처럼 떠돌며 나도 모르게 정신으로 흡수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영혼의 색깔이 바뀌고 육신의 행동이 바뀐다. 인류가 예술가에게 준 특권인 자유로운 활동으로 탄생한 정의하기도 어려운 장르만큼, 위 과정으로 탄생한 작품들처럼 어느덧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만들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예술가들이 인류의 영적 스승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동서악회'를 보다

그렇기에 동서악회의 활동은 더욱 주목된다. 모임의 이름이 알려주듯이 동양의 음악과 서양의 음악이 함께하는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의 모임으로, 동양 작곡가와 서양 작곡가들의 교류뿐만 아니라 동양의 음악 언어와 서양의 음악 언어를 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통의 확장을 수행하는 음악가들로 구성되어 전통과 오늘을 아울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음악을 탐구하여 음악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인간의 보편적 삶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국의 전통춤을 주제로 제14회 정기연주회에서 발표된 작품들이 일률적이기를 거부하고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기에 더욱 그러하다. 일곱 명의 작곡가와 27명의 연주자, 무용가, 비디오 아티스트가 참여한 만큼, 전통에 가까이 다가가 그 핵심에 닿고자 하는 작품부터 전통의 양식을 오늘날의 양식으로 변모시킨 작품, 그리고 전통의 본질을 안고 오늘의 모습으로 확대하는 작품까지 각 작곡가들이 보여준 각자의 지향점과 그 결과로 나타난 다양성은 나와 동조하거나 한 구석에 잠든 감각을 일깨웠다. 그것이 알고리즘에 의하여 취향에 맞는 것만 보여주는 '에코 챔버'(echo chamber)에 갇힌 인터넷 영상에서 벗어나 무대로 발걸음을 옮겨 공연을 직접 봐야 하는 이유이다.

김위연, 최민준, 박윤경, 이효원

전반부 첫 곡은 김위연의 피아노와 대금, 가야금을 위한 '비나리'이다. 이 무대에서 세계 초연되었다.(피아노: 임보현 대금: 김규환, 가야금: 이슬기) 이 곡은 살풀이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전통적 표현을 유지하는 주선율과 다양한 음계를 기반으로 하는 피아노(이번 공연에서 피아노는 키보드로 연주되었다.)의 공기와 같은 은은한 화음 진행이 어우러졌다. 그리고 드뷔시의 마지막 소나타를 연상시키는 단아함과 함께 억지스러운 공존이 아닌 자연스러운 공생을 들려주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전통악기와 서양악기, 전통적 표현과 서양 언어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했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조절된 긴장도와 극적인 정서를 충분히 전달했다.

두 번째 곡 또한 세계 초연으로서 최민준의 비올라와 아쟁, 베이스클라리넷, 트롬본을 위한 '딱지'가 연주되었다. (비올라: 정현진, 아쟁: 김우성, 베이스클라리넷: 홍성수, 트롬본: 서주현) 이 곡의 모티브가 된 춤은 처용무지만, 처용무 자체보다는 그 춤을 추는 심정과 자신의 행동이 음악화되었다. 현대음악에서 서양의 악기는 보편적 표현 도구가 되었듯 이 곡에서도 아쟁은 전통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적 표현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보편적 표현 도구로의 관점이 있었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편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각 악기는 성격적으로 사용되어 각 악기가 갖는 음향적 특징을 십분 활용했다. 특히 다른 악기가 모방하기 어려운 아쟁의 강력한 스트로크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세 번째 곡은 박윤경의 피아노와 가야금, 생황, 구음, 춤을 위한 '학나래'가 한국 초연되었다. (피아노: 임보현, 가야금: 이해정, 생황: 정규혁, 구음: 김도현, 춤: 송한나) 동래학춤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춤의 자유롭고 우아함이 모티브가 되어 전통의 멋과 서양 음률의 아우라가 교차한다. 특히 모든 악기가 고유의 음색을 유지하며 서양 음률에 맞추는 장면과 전통적 표현에 맞추는 장면 전환이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 악기가 갖는 넓은 표현의 폭을 들려주었다. 이것은 동래학춤을 전통의 시각과 무용의 시각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의 은유로도 해설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작금의 한국 무용은 양식화되어 현대무용을 포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 무대에서 펼친 춤 또한 이러한 어우러짐을 극대화하며 음악은 춤이 되게 하고, 춤은 음악이 되었다.

전반부 마지막 곡은 이효원의 대금과 아쟁, 피아노, 국악 타악기를 위한 '신(新) 진주검무'가 이 무대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대금: 윤석만, 아쟁: 조우리, 피아노: 임보현, 국악 타악기: 이상경) 이 곡은 진주검무를 모티브로 이 춤에 얽힌 전쟁 이야기를 가져와 현대적인 정서로 탈바꿈시켰다. 원초적이고 격렬한 타악기 리듬을 전면에 배치하고 피아노는 불협화음의 연속을 과감하게 쏟아내며 아쟁은 특유의 거친 숨소리를 뱉어낸다. 그 사이에서 대금은 애가(哀歌)를 부르는 구도는 매우 극적이다. 모든 악기가 충천한 에너지로 조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숨 막히는 드라마를 창출했다.

김은혜, 김수혜, 이복남

후반부 첫 곡은 김은혜의 정가와 켄, 비올라, 첼로를 위한 '봄의 파반 II'로, 이번 연주회를 위해 개작되어 초연되었다. (정가: 박진희, 켄: 크리스토퍼 아들러, 비올라: 박성봉, 첼로: 강찬욱, 비디오

아트: 윤제호) 김은혜 작곡가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소재를 사용하여 우리 시대 음악과 관객의 소통의 문을 열었다. 이 작품은 궁중무용인 '춘앵전'을 파반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정가가 위치한 전통 음률의 층과 현악기로 진행하는 서양 음률의 층이 유지되어 그 사이에 동남아시아의 전통악기인 켄(khaen/khene: 생황처럼 여러 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구로 바람을 불어넣어 지공으로 음정을 조절하여 화음을 낸다. 음색도 생황과 유사하지만 관들은 두 겹으로 배치되어 있다.)이 중재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음악의 공존은 서로의 본연의 특징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또 다른 가능성을 자극한다.

다음 곡은 세계 초연된 김수혜의 피리와 첼로, 타악기, 춤을 위한 '나빌레라'가 이어졌다. (피리: 장동민, 첼로: 윤석우, 타악기: 최영진, 춤: 김지민) 김수혜 작곡가는 전통악기와의 앙상블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주제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승무를 주제로 하는 이 작품은 춤을 위한 음악이라는 한정에서 벗어나 승무가 독주로서 음악이 되어 곡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어 '춤을 위한 협주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곳적에는 음악과 춤은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이 작품에서 음악과 춤은 하나가 되었다. 특히 후반부에 춤이 역동하는 타악기의 리듬을 배경의 카덴차가 되어 절정으로 끌어냈던 장면은 잊기 어려운 절경이었다.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이복남의 피리와 바이올린, 첼로, 두 명의 타악기 연주자를 위한 '태평지락'도 이번 공연의 세계 초연작이다.(피리: 성상윤, 바이올린: 이보연, 첼로: 강찬욱, 타악기: 최소리, 이안드레) 이복남 작곡가는 '동서악회' 회장으로서 전통적인 소재를 서양 음악 언어의 어휘로 사용하며 폭넓은 관계와 소통을 추구한다. 이번 작품은 태평무가 모티브가 되었고 피리와 바이올린, 첼로가 독주 그룹을 두 명의 타악기가 합주하여 '삼중 협주곡' 혹은 '합주협주곡'과 같은 구성을 들려준다. 특히 상당한 길이의 타악기 연주는 음색과 리듬이 대단히 조직적이고 극적으로 짜여 있어 지켜보는 감상자의 넋에 생명의 리듬을 불어넣었다. 서로 다른 음률과 표현이 서정적으로 어우러진 독주 악기 그룹은 이러한 타악 앙상블과 상호 보완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전통을 서양의 음률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서양 음악이 유입된 이후로 줄곧 있었다. 음정 체계, 표현 양식, 전개 과정 등 많은 부분이 달라서 음의 다발로 구성되는 서양의 체계와 한 음의 일생으로 진행하는 동양의 체계는 너무나도 이질적이라 이러한 노력은 무모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노력으로 하나의 음악에서 둘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공생하며 하나가 되는 지점에 다가갔다. 동서악회의 이번 연주회는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었다. 서양의 화음과 전통 선율의 화합이 이제는 시도가 아니라 완성된 체계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현대음악뿐만 아니라 대중화에도 성공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조금 더한다면, 부분에 따라 들리는 정서적 불일치와 연주 기법의 상호 모방, 음악과 영상의 상호 종속성은 고민할 부분이다. 이러한 과제가 있었기에 다음 공연 관심과 기대는 더욱 크다.

評 송주호(음악평론가)